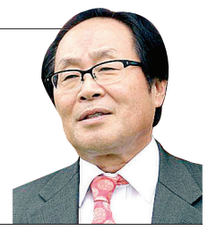
현불논단

행복의 등불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학과
명예교수

윌딩어 교수 "행복은 '관계'에 있다"
부, 명예, 학벌 추구는 불행 가져와

믿지 않는 정보 외면하는 '확증편향'
우리 사회 '관계의 황폐화' 가속시켜
세계 속 폭력과 갈등 확증편향 원인

붓다 강조한 '연기', 현 시대에 필요
분별심과 집착 경계… 열린사회 지향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언론에서는 지구촌 삶의 문제와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해에 대한 희망을 그려 보고자 하는 바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소재로 선택한 것은 '행복'과 '확증 편향'에 관한 특집인데 붓다 가르침의 가치를 새삼 확인해 주는 내용이다.

윌딩어(R.Waldinger) 하버드 의대 교수는 85년간 하버드 학생과 빈민 청년, 그리고 그 자손 2000여 명의 삶을 추적해 "행복은 부, 명예, 학벌이 아닌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위의 내용은 규범적인 교훈 비슷하게 익히 들어온 내용이다. 그래도 새삼 새로운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은 부, 명예, 학벌의 지나친 추구로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인간 삶의 양식에 나타나고 있는 관계는 점점 가파르고 메말라가고 있다.

'관계의 황폐화'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견해, 신념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확증 편향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근현대사에 확증 편향으로 인한 인류의 비극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극단적인 이념대립과 갈등도 그러하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갈등은 집단적인 확증 편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태반이다.

그런데 이를 어쩌랴. 이번 조사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확증 편향증이 매우 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 사회운동 영역에서 일찍이 거론되어 온 것이지만 그 실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황폐화는 개인의 행복을 훼손시키고, 집단 간의 갈등과 폭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황폐화 현상을 보면서 붓다의 지혜가 가슴에 다가온다. 붓다 지혜의 핵심인 연기론적 세계관은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이다. 너와 나 그리고 모든 그들은 상호 의존해 존재하고 또한 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구조는 이원적으로 사물을 보는 데 익숙하다. 주체와 객체, 나와 너, 선과 악 등 이분법적 사유 틀은 우리의 혼란을 정리해 주기 때문이다. 연기론은 이러한 이분법적 요소들을 통합하여 연기적 질서를 제공한다. 연기론은 상대주의적 존재론으로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무조건적인 것을 거부한다. 따라서 분별심과 그에 대한 집착을 경계한다. 그만큼 열린 마음과 열린 사회를 지향한다.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 레비나스(E.Levinas)가 주창한 '타자 윤리'는 바로 연기론적 사유 틀에서 나온 것이다. 타자 윤리는 인간을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관념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엉키고 느끼며, 서로 나누고 고통받는 몸적 존재로 이해한다.

따라서 인간의 윤리는 관념적 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배려하는 실천을 향한다. 자아론적 윤리에서 벗어나 관계 중심의 윤리, 감성적 윤리로의 길을 열었다. 서로가 인드라망의 그물코에 걸려 사는 삶의 길에 타자 윤리가 있다.

이러한 타자 윤리는 타자뿐만 제대로 자기를 위한 것이다. 바로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자비행이다. 붓다 가르침의 최종 목표는 이고득락(離苦得樂), 즉 중생의 행복이다. 지구촌과 우리 사회의 행복을 위해 붓다의 가르침을 펼칠 방편은 무엇인가. 모든 불자의 화두이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단박에 잘라라

새해가 밝았다. 한 해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차렷을 해야 한다. 차렷 자세는 직립 인간이 바로서는 인체의 모습이다. 그래서 차렷은 입대한 군인이 처음 배우는 기본자세이며, 일반 시민의 모임에서도 시작할 때 관례적으로 취하는 모습이다.

어릴 때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운동장에서 차렷 자세부터 배웠다. 그래야만 교실 안에서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차렷하고 구령을 하면 학생들은 앞을 바라보며 두 발을 모으고, 두 손을 옆구리에 붙인다. 그 행동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꼿꼿하게 서서 빠르게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차렷이다.

〈벽암록〉 74장에서 금우(金牛) 스님은 '막야횡안봉전전단 갈등과(鏌鋣橫按 鋒前剪斷 葛藤寡)'라고 설한다. "막야 보검을 휘두르니 칼날 앞에 모든 갈등의 뿌리가 잘렸구나"라는 뜻이다. 막야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검이고, 보검의 칼날은 정신력을 상징한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날선 칼날을 가지고 있다. 그 정신력으로 갈등을 싹둑 잘라버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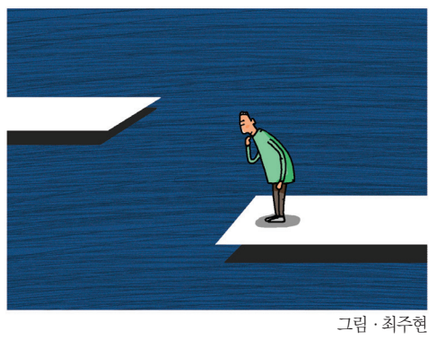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기원전 800년경, 프리기아 왕국 최초의 왕 고르디우스는 자신이 왕이 될 때 타고 왔던 마차를 사바지오스 신전에 바쳤다. 신전의 신관들은 그 마차를 신전 기둥에다 복잡한 매듭으로 묶어 두었다. 세월이 흐르자 그 마차를 묶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된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프리기아로 진군하여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려 했으나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풀 수 없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칼을 높이 쳐들어 그 매듭을 단번에 끊어버렸다. 이후, 그는 아시아의 왕이 되어 인도까지 진군했다. 어지러운 것은 단칼에 베어버려야지 조금씩 베어내서는 안 된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고, 끊었다가 또 피는데 그렇게 하면 평생 담배를 끊을 수 없다. 마약하는 사람들도 병원 치료를 받고 나와서 마약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환청과 환상의 정신질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마약이면 마약, 술이면 술을 그냥 딱 잘라버려야 한다. 갈애의 뭉텅이를 막야 보검처럼 단칼에 끊어버려야 한다. 자기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집념, 욕심, 애욕을 정신력으로 잘라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구중인출비로인(句中引出毘盧印)'으로, 법신의 광명한 빛이 내 마음속에서 빛나게 된다. 그 빛은 본래부터 있었던 내 안의 불성이다. 얼룩진 마음을 차렷하는 자세로 닦아내면 본래적인 참 자아의 삶이 된다. 계묘년(癸卯年)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작가〉

社 說

소통 통해 한국불교 중흥 이끌길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구현하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11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목표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사회적 소통 강화 △승려복지 강화 △한국불교 문화 자긍심 고취를 발표했다.

세 가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한국불교의 성장 동력을 결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는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승려복지 강화'는 완벽한 수행환경 조성으로 승가공동체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불교 문화 자긍심 고취'는 제37대 집행부의 주요 사업인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를 중심으로 교구특성화, 미래세대 인재 양성 등이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서울도심권 명상센터 건립과 이곳에서 활용될 종단 표준 명상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되며 승려의료복지를 위해 안성 파라밀요양병원을 인수해 종단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진우 스님은 명상 수행을 통한 포교 활성화와 승려복지 강화는 출가자 증진 해법이라고 했다. 포교를 통해 젊은 세대에 불교적 관심을 늘리고, 승려복지를 통해서는 완벽한 수행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음'이다. 불법(佛法)을 현대적 언어로 전하겠다는 진우 스님의 계획은 일반 대중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국불교 중흥은 포교와 전법의 성공에 있으며, 이는 대중과의 소통에서 비롯된다. 소통을 통한 불교중흥을 기대한다.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거는 기대

조계종이 천년 동안 쓰러져 있는 경주 남산의 열암곡 마애여래입상 바로 세우기 불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대장정을 시작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후 첫 원력으로 1300여 년 전에 조성돼 조선시대 때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천년을 세우다'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것.

'천년을 세우다'에는 '과거 천년'을 세워서 '미래 천년'을 열어가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과거 천년'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를, '미래 천년'은 진우 스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명상센터 건립과 미래세대 포교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미래 동력을 결집하는 불사를 의미한다.

마애부처님은 '5cm 기적'이라 불린다. 지진 당시 80톤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에도 이마가 바윗돌을 받쳐준 덕에 큰 화를 피했다. 2007년 발견 당시 콧날과 바닥 사이는 불과 5cm에 불과하다. 상호도 완벽히 보존돼 있어 "당장 국보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불상이다.

조계종은 동력결집을 위해 1월 25일부터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 매일 기도 정진에 들어간다.

진우 스님은 1월 11일 진행된 추진위 발족식에서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라고 말했다. 종단중흥과 국민행복 시대를 상징하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워, 미래 천년을 위한 불사가 아름답게 회향되길 바란다. 불교의 천년을 바로 세우는 데 사부대중 모두가 각자의 자리와 역할에서 십시일반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